

MBTI성격유형에 따른 사랑의 구성요소와 사랑유형분석

정민자 · 박선영
아동가정복지학과

<요약>

본 연구는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사랑의 구성요소와 사랑유형을 분석하고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MBTI 성격유형과 사랑의 구성요소와 사랑유형을 조사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선행연구 고찰과 MBTI 성격유형 검사와 사랑의 구성요소, 사랑유형 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조사하였다. 회수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분산분석, Duncan 검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MBTI 성격유형의 일반적인 경향은 미국인구에 대한 성격유형과 비교했을 때, ISTJ, ISFJ, ISTP, ISFP, ESTP유형은 더 많은 비율을 나타냄을 알아보았다. 둘째, MBTI 성격유형의 선호별(E-I, S-N, T-F, J-P)에 따른 사랑의 구성요소는 EI지표에서는 친밀감, 열정, 헌신의 구성요소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냈고, SN지표에서는 친밀감요소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셋째, MBTI 16가지 성격유형별에 따른 사랑의 구성요소는 친밀감의 요소의 차이가 사랑의 구성요소에 따라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넷째, MBTI 성격유형의 선호별(E-I, S-N, T-F, J-P)에 따른 사랑의 유형은, EI지표에서는 좋은 친구 같은 사랑과 낭만적 사랑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냈고, JP지표에서는 논리적 사랑과 소유적 사랑에 유의미함이 나타났다. 다섯째, MBTI 성격유형의 16가지 유형별에 따른 사랑의 유형을 알아본 결과, 성격유형에 따라 논리적 사랑과 소유적 사랑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Components of Love and the Types of Love according to the MBTI Personality Types

Jung Min Ja · Park Sun Young
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Abstract>

This research was to analyze the components of love and the types of love according to the MBTI personality types. The students in university of Ulsan were voluntarily selected to investigate the personality types of MBTI, the components of love, and the types of love.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the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Duncan verification were applied by using the SPSS Program.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ing.

First, the general trends of the MBTI personality types showed as follows. In comparison with the American personality types, the types of ISTJ, ISFJ, ISTP, ISFP, and ESTP showed the high ratio. Second, the compositions of love according to he preference(E-I, S-N, T-F, J-P) of personality types showed as follows. The sections of Intimacy, Passion, and Commitment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I index and the Intimacy section indicat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N index. Third, the compositions of love according to sixteen types showed as follows. Only the Intimacy section according to the sixteen personality types of MBTI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Fourth, the types of love according to the preference(E-I, S-N, T-F, J-P) showed as follows. The section of Storge and Ero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I index. The section of Pragma and Ludu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JP index. Fifth, the types of love according to sixteen types showed as follows. According to the sixteen types of the MBTI personality types, Pragma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elation with the personality types and the types of love, the Storge is additionally connected and the Eros is statically associated.

I. 서론

사랑은 인간 친밀성의 핵심으로서, 결혼을 통해 가족관계를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이루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사랑은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관계의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현상으로서도 분석될 수 있는 주제이다¹⁾. 즉 사랑의 정의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는 사회 문화적 구성물이기도 하며, 또한 한 개인 내에서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한다(Hatfield & Sprecher, 1986; Hazan & Shaver, 1987; Hendrick & Hendrick, 1986, 1989; Lee, 1977; Rubin, 1970; Sternberg, 1986)²⁾.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랑의 연구는 개인간의 일상적 관계를 규정하는 삶의 주요한 인자를 분석하는 의미 외에도, 이러한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양상이 가족과 사회 안에서 집단적인 동향을 갖게 될 때 나타나는 시대적, 문화적 동향을 파악해내는 의의를 갖

1) 최연실(1999). 사랑에서의 사회적 성과 자기개발에 대한 연구: 미혼 및 기혼 남녀의 면접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p56.

2) 최혜경 · 강진경 · 신수진(1999). Sternberg의 사랑의 삼각이론의 한국 부부예의 적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p48.

는다³⁾.

이러한 사랑을 정의하고 표현하는 대한 연구는 주로 외국에서 이루어 왔으며 사회학, 심리학, 가족, 인간발달영역 등의 많은 학문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국내에서 사랑과 친밀감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 초기단계임을 알 수 있다. 가족생활프로그램 중 부부교육과 부모교육, 예비 부부교육⁴⁾의 연구에서 일부분 언급되어 왔으나 사랑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않았으나, 20세기말에 이르러서야 연구가 되기 시작하였다. 김중술(1992), 정효택(1994), 조은혜(1996), 홍순옥(1993), 김신자(1996), 임문자(1999), 박정윤(2000), 김경순(2000), 유소영(2000)은 심리학분야에서, 박혜경(1993)은 여성학 분야에서, 강진경 외(1996), 김덕일(1996), 김경신 외(1997), 박의순(1997), 이유숙(1997), 송윤희(1998), 최연실(1999), 최혜경 외(1999)는 가족학 분야 등에서 사랑과 친밀감을 주제로 하여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랑과 친밀감을 주제로 하여 나타난 연구에서 사랑에 대한 정의 또한 학자들마다 다르며, 사랑과 관련하여 인간을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현대 결혼관연구에서 왜 결혼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유 첫 번째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그리고 이혼하는 이유를 또한 살펴보면 '부부 불화'가 75.2%로 1순위로 나타났다⁵⁾. 부부불화의 원인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흔히들 '성격차이' 때문이다. 특히 최근의 이혼사유는 제1순위인 부부의 외도를 누르고,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로서 '성격차이'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결혼을 할 때는 사랑이란 요소가 주로 작용하였지만, 헤어질 때는 성격차이가 주요기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 성격의 역동성과 사랑의 과정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Erikson은 연인관계와 결혼관계에서의 사랑(love)과 일(work)과 함께 성인기의 발달과업으로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혼을 위한 데이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사랑에 대한 실천이 시작되는 대학생은 어느 시기보다 결혼과 사랑에 대해 심각하며 관심이 높다.

청년기로서 대학생은 한 개인이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인 모든 측면에서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로 이 시기의 성공적인 적응은 그 다음 인생의 대비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⁶⁾. 이 시기는 동년배의 영향이 증가하는 시기일 뿐 아니라 동성에서 이성으로의 애착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어느 시기보다 애정(사랑)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며 청년기의 친밀한 관계는 개인적 성공적인 인생과 적응에 기여한다⁷⁾.

아직까지 성격유형과 사랑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실증연구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사랑의 유형과 성격차이에는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아 추후에 예비결혼교육이나 부부교육의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 3) 최연실(1999). 사랑에서의 사회적 성과 자기개발에 대한 연구: 미혼 및 기혼 남녀의 면접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p56.
 - 4) 정민자(1996).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 I. 대한가정학회지 110(8) p373-391.
유영주, 이창숙(1998). 부부갈등해결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Baucom과 Epstein의 인지-행동적 치료 모델에 기초하여
이경희, 옥선화(1999).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유형. 서울대 대학원
최희경(1994). 결혼초기 부부를 위한 부부교육프로그램의 구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6) p171-180.
 - 5) 통계청(2001). 2000년 혼인·이혼통계결과
 - 6) 차승희(1993). 대학생의 이성관계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상담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7) 권경인(1996). 대학생의 이성관계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이 효과분석.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첫째, 대학생들의 MBTI 성격유형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MBTI 성격유형의 선호차원(E-I, S-N, T-F, J-P)에 따라 사랑의 구성요소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MBTI 성격유형의 16가지 유형별에 따라 사랑의 구성요소가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넷째, MBTI 성격유형의 선호차원(E-I, S-N, T-F, J-P)에 따라 사랑유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다섯째, MBTI 성격유형의 16가지 유형별에 따라 사랑유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사랑의 유형

사랑은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어떠한 측정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사랑자체가 복잡하고 문화적인 제약을 받으며 감정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분석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 또한 사랑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달하므로 연구자들은 사랑의 개념에 대한 본질을 정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한다(박의순, 1977; Beach & Twsser, 1988; Kovecses, 1991; Rubin, 1988; Sternberg & Grajda, 1984)

Lee(1977)는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의 개입 없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현상 그대로 밝히고자 시도하여, 그리스 철학자의 사상을 근거로 하여 좋은 친구로서의 사랑(Storge), 소유적 사랑(Mania), 논리적 사랑(Pragma), 이타적 사랑(Agape), 낭만적 사랑(Eros), 유희적 사랑(Ludus)으로 명명화하였다. Lasswell과 Lobsenz(1980)은 Lee의 유형분류를 경험적으로 입증하고자 Lee의 유형분류를 근거로 하여 50문항의 사랑척도를 만들었다.

Sternberg(1986)는 사랑의 행동과 경험들을 연구한 자료 및 여러 이론에 근거하여, 사랑의 삼각이론을 제시하여, 사랑은 친밀감(Intimacy), 열정(Passion), 헌신-결정(Commitment)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사랑의 관점이 사회-이데올로기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회-심리적인 영역이라는 것에서 Sternberg의 사랑의 구성요소인 삼각이론과 Lee의 유형론이 “정신적으로 가장 밀접하다”라고 결론내려 이 두 가지 사랑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1) 사랑의 삼각이론

스턴버그(1986)는 사랑에 대한 삼각형 이론에서 사랑에 대한 3가지 구성요소인 친밀감(Intimacy), 열정(Passion), 헌신-결정(Commitment)으로 사랑의 체험을 측정하였다⁸⁾.

친밀감(Intimacy)은 관계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친근성, 상대방의 행복에 대한 관심 및 상대방과 결합되고 싶어하는 감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친밀감은 관계가 형성되는 초기단계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나중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가

8) 고선주 외(2000). 사랑의 심리학. 하우

족, 친구, 연인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사랑의 하위 요소이다.

열정(Passion)은 사랑의 관계에서 낭만이나 성행위 등으로 이끌어 주는 강한 신체적 매력이나 요구에 해당된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생리적 차원에서의 욕구나 흥분의 정도가 높아야한다. 열정은 관계가 형성되는 초기에 매우 빠르게 발달하여 그 절정에 달하지만 관계가 지속되더라도 초기에 형성된 수준의 열정을 그대로 유지하든지 또는 그 보다 더 낮아지는 것이 전형적이다⁹⁾.

헌신-결정(Commitment)은 두 가지 측면 즉 단기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기적인 측면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측면은 그 사랑을 오랫동안 유지하겠다는 헌신이다. 따라서 스텐버그는 사랑은 정서적 친밀감, 동기적 열정, 인지적 헌신-결정의 기본 세 요소가 함유된 다차원의 현상이라고 정의했다.

어떠한 사랑의 관계든지 상기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라도 강하게 나타나야 지속된다. 세 요소간의 상대적 수준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게 되므로 관계도 시간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시간에 따라 사랑의 구성요소가 변한다는 가설에 입각해서 변화기준은 개인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2) 사랑의 유형

Lee는 다음과 같이 사랑의 유형을 6가지로 분류하였다¹⁰⁾.

- (1) 좋은 친구로서의 사랑(Storge)은 많은 시간과 활동을 공유하는 특별한 종류의 우정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사랑 방식이다. 천천히 발전해 가는 정(情)에 근거한, 지속적인이고 진화적인 사랑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 (2) 소유적 사랑(Mania)은 의존성과 질투가 특징이다. 강박적인 성격을 갖는 강한 감정을 수반하며, 사랑 받는 것에 대한 반복적인 확인 욕구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관계에 만족을 얻지도 평온을 얻지도 못하나, 이들 스스로는 관계를 끊지 못해 상대가 관계를 끝내게 된다. 외로움, 낮은 자존감, 자기와 애인에 대한 불확실감 등이 원인이 되는 사랑 증후군 특성을 갖는다.
- (3) 논리적 사랑(Pragma)은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쇼핑리스트 같은 사랑유형이다. 상대가 자신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의식적으로 판단하고 의도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상대를 추구한다. 즉 쇼핑 목록을 작성하듯 상대에게 원하는 실용적인 자질의 목록을 의식적으로 작성하고 계산하여 사랑한다.
- (4) 이타적 사랑(Agape)은 헌신적·타인 중심적·자기 상실적 사랑유형으로, 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상호성을 기대하지 않으며 사랑을 의무로 여긴다.
- (5) 낭만적 사랑(Eros)은 열정적 사랑이라고 불리는 강한 정서적 감정이 특징이다. 주로 신체적 매력에서 상대방에게 매력을 느끼며, 이상에 맞는 상대를 만나게 되면 첫눈에 반해 버린다. 말이나 접촉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
- (6) 유희적 사랑(Ludus)은 사랑에 빠지거나 헌신할 의사가 없는 정서가 제외된 사랑이다. 언제든지 상대방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상대에 대해서도 매우 허용적이며 한 대상에만 몰입하지 않으므로 여러 상대를 동시에 사랑하기도 한다.

9) 윤가현(2001). 성문화와 심리. 학지사.

10) 조은혜(1996). 성격과 사랑유형간의 관계-사랑유형척도의 타당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 MBTI에 따른 성격유형

각 개인의 성격은 독특하다고 말한다. 인간은 누구나 유전과 환경의 산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독특한 존재일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인간이 모두 하나같이 다른 독특한 존재라는 신조는 우리가 교육하고, 상담하고, 같이 일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양 믿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흥미가 다른 사람들을 너무 자주 접하는 것으로 알게 된다.

MBTI 이론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유형의 차이를 미리 예견하여 보다 건설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 준다는 데에 있다. 즉 MBTI 이론은 사람마다 행동의 차이가 있어도 그 차이가 우연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히 관찰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기본적인 선호 경향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다¹¹⁾.

MBTI는 스위스의 심리학자이며 임상가였던 Cral Jung의 심리학적 유형론을 바탕으로 이를 실용화하기 위해 Katharine C. Briggs와 Isabel Briggs Myers 두 모녀에 의해 개발 제작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¹²⁾. 우리 나라에서는 1987년도부터 김정택·심혜숙에 의해 4년간에 걸쳐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 졌다¹³⁾.

외향성-내향성(EI지표)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태도로서 개인과 사회가 생활해 나갈 때 관심의 방향이 외부세계인가 내부세계인가를 결정짓는 것이다. 외향성은 주로 외부세계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 바깥의 사람, 사물에 대해 인식과 판단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내향성의 사람은 주로 내부세계로 향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의 개념, 아이디어에 인식과 판단을 사용하려는 경향을 띤다.

감각-직관(SN지표)은 두 가지 인식방법 중에 어느 것을 선호하는가를 밝히기 위한 지표이다. 감각을 통해 인식하려는 경향 때문에 오관을 통한 관찰 가능한 사실, 사건을 더 잘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직관을 통해 인식하려는 경향을 가져 의미나 관계 또는 가능성을 더 잘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고-감정(TF지표)은 판단할 때 두 경향 중 더 선호하는 것을 밝히기 위한 지표이다. 인정에 이끌리지 않고 주로 사고를 통한 논리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로 개인적 또는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감정에 따라 결정하려는 경향을 지닌 사람들도 있다.

판단-인식(JP지표)은 생활양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판단을 선호하는 사람은 외부세계에 대처해 나갈 때 판단과정 즉 사고나 감정을 주로 사용하고 인식을 선호하는 사람은 외부세계에 대처해 나갈 때 인식과정 즉 감각과 직관을 주로 사용한다¹⁴⁾.

3. 성격유형에 따른 사랑의 표현¹⁵⁾

16가지 성격유형별로 나타나는 사랑의 표현은 다음과 같다.

11) 김정택 외(1995). MBTI 개발과 활용. 한국심리검사연구소

12) 김정택, 정덕자(1998). MBTI 타당도에 관한 일 연구. 한국심리유형학회지. 5(1). 25-54.

13) 김정택, 정덕자(1998). MBTI 타당도에 관한 일 연구. 한국심리유형학회지. 5(1). 25-54.

14) 김정택·심혜숙·계석봉(1995). MBTI 개발과 활용. 한국심리검사연구소.

15) 김정택·심혜숙·임승환(1997). 성격유형과 삶의 양식. 한국심리검사연구소.

ISTJ 유형을 지닌 사람들에게 사랑은 자신을 관계에 개입시키고,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ISTJ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에게 모두 책임감 있고, 실제적이고, 믿을만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한다. 관계형성에 있어서, 이들은 상황과 자기 자신의 역할에 적절하게 행동한다.

ISFJ에게 사랑은 안전지대이며 약속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유형들처럼 ISFJ도 사랑에 쉽사리 빠지기는 힘들다. 그들은 결혼과 가정에 지고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파트너를 구하기 위해 열성이며 파트너가 없을 때는 생의 충족감을 느낄 수가 없다. 결혼과 가정을 꾸리는 것은 ISFJ에 있어서 그들의 사랑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결혼으로 인해 그들이 타인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도 한다.

INFJ들에게는 ‘잔잔한 물은 깊게 흐른다’라는 말이 적용된다. 그들은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 매혹되는 경향이 있으며 외적인 여건들을 초월하여 이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 INFJ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쏟는 애정의 깊이는 단지 일부분만 밖으로 표현된다. 때때로 홀로일 때 INFJ들은 자신의 파트너에게 가지는 사랑의 깊이를 느끼게 된다.

INTJ에게 있어서 사랑은 세상에 대한 그들의 비전에 누군가를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INTJ는 생명력과 열정을 가지고 삶은 즐기면 살아가는 파트너에게 매혹되는 경향이다.

ISTP 유형을 지닌 사람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이면서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ISTP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자유를 허용해주고(특히 자신들의 취미나 흥미를 위해서), 또 자신과 함께 이러한 활동을 같이 하고 싶어하는 배우자를 찾는다.

ISFP 유형의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은 연인에 대한 헌신이며 충성이며 관심이고 재치이며 동시에 연인의 욕구와 소망을 배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ISFP 유형의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면 이들은 사랑 때문에 탈진하는 듯이 느낀다.

INFP에게 사랑은 매우 깊은 헌신이며 쉽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상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실체를 조심스럽게 검토한다.

INTP들은 사랑에 빠짐-지속기-떠남의 분명한 3단계를 거치며 사랑한다. 이러한 단계는 그들의 단계는 그들의 사고유형과, 순서와 연속성에 대한 요구와 관계된다.

ESTP 유형을 지닌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인생의 즐거움을 나누고 어려움을 피하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상대자를 찾는 것을 의미한다.

ESFP 유형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다른 사람과 서로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ESFP 유형의 사람들은 연인과 함께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 토론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은 대개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에 달려 있다. 이들은 관계가 불편하게 느껴지면 언제라도 재빠르게 관계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다.

ENFP 유형에 있어서, 사랑은 거의 끊임없이 계속 되는 상태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어떤 사람 혹은 새로운 것에 매료되거나 사랑에 빠진다. ENFP 유형들이 흔히 사랑에 빠진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각 유형의 사람들이 처음 사랑에 빠지면, 화려하고 다양한 기질을 지닌 ENFP 유형을 닮는다는 것이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다.

ENTP는 어떤 사람이 자신과 꼭 맞다고 느낄 때 사랑에 빠지게 된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ENTP는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잘 알아차린다. ENTP는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이 매우 힘들다. 이 기간 동안에는 그들의 모든 가능성을 찾아보았다고 확신할 때까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사회적인 유대관계를 찾아 나선다. 따라서 그들은 사랑에 관해서 결정을 하기가 매우 힘들다.

ESTJ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안정과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으

로 사랑에 빠졌을 때는 좀 더 자발적이고 순간 순간에 개방적으로 된다. ESTJ들은 관계에서 안전감과 충성을 제공하는 한편, 기대하기도 한다. 실연을 당하면 ESTJ들은 당황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확고함을 가지고 있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ESFJ들에게 사랑이란 온화함이며 관심이다. ESFJ들은 첫 사랑에 빠졌을 때 온화함을 보여주고 상대방에게 갖가지 방법의 관심을 보여준다. ESFJ들은 개인적인 관심 때문에 그들의 관계에서 주고받기를 기대한다. 다른 사람들은 ESFJ처럼 사려 깊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동일한 것을 기대한다면 실망하게 된다.

ENFJ유형을 지닌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꽃과 시와 촛불을 켜놓은 만찬 등 낭만적인 것들이다. 이들이 처음 사랑에 빠지면, 그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이상적인 상상을 갖게 되고, 그것도 아주 깊게 빠져서 헤어날 못하며 사랑 이외의 다른 것은 생각할 여지가 없게 되어 버린다. ENFJ유형을 지닌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충성심을 가치롭게 여기며, 상대방에게도 그런 것들을 기대한다.

ENTJ유형을 지닌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자신들의 전체적인 계획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게 알맞은 것이어야 하며, 이들의 더 큰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사랑은 언제나 그 관계의 맥락에 달린 것이다. ENTJ유형을 지닌 사람들은 사랑을 가혹할 정도로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쉽게 사랑에 빠지기 쉬운 반면, 상대방이 이들의 직접적인 성향과 독립성에 대한 욕구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에만 사랑을 지속한다.

4. 선행연구 고찰

Hendrick과 Hendrick(1986)과 정효택(1994)은 여성은 남성보다 친구 같은 사랑의 태도를 보였으며, 사랑경험 유무에서 사랑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열정적인 사랑, 소유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의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임문자(1999)는 사랑경험과 사랑태도에서 열정적 사랑, 유희적 사랑, 소유적 사랑태도에서는 사랑경험이 없는 사람이 높게 나타나 경험이 많은 사람보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랑태도를 보이고 있고, 남녀간에서 남자는 소유적인 사랑, 여자는 헌신적인 사랑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조은혜(1996)는 Lee(1973)의 여섯 가지 사랑유형을 우리나라 대학생 표본에서 확인하고 이러한 유형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NEO-PI-R" 즉,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순응성, 통제성이라는 성격 요인과의 상관을 조사한 결과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도 그대로 확인되었으며, 헌신적인 사랑과 가장 관계가 깊었던 성격 요인은 이타적인 요인과의 타인과의 공감 능력 정도를 반응하는 순응성 요인이었고, 소유적인 사랑은 신경증 적인 것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외향성 요인과는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실용적인 사랑과는 계획하고 조직화하는 자기 통제력을 반영하는 통제성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구 같은 사랑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관계를 보였다. 유희적인 사랑은 순응성 요인과의 열정적인 사랑은 외향성 요인과의 가장 관련이 있음을 보였다. 홍대식(1996)의 연구에서도 Hendrick & Hendrick(1986)이 발견한 6개의 사랑 스타일이 발견되었지만, 미국 대학생들보다 한국 대학생들은 소유적 사랑과 열정적 사랑이 더 컸고, 논리적 사랑과 유희적 사랑의 요인이 작았다. 성별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열정적인 사랑과 이타적인 사랑을 하였다.

박의순(1997), 최혜경 외(1999), 유소영(2000)의 연구에서는 스텐버그의 삼각이론을 적용

하여 한국부부의 사랑과 이성교제시의 이성관계 만족도를 확인하였다.

Davis & Latty-Mann(1987)은 성격의 어느 요인이 어떤 유형의 사랑과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치 못하며, 이와 관련된 성격 요인을 찾는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뚜렷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정택과 제석봉(1992)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혔다. 부부관계 및 연인관계에서 빚어지는 실망, 원망, 저주들의 갈등과 오해의 근원이 '타인에 대한 동일시' 현상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선희(2000)는 부부간의 성격차이가 의사소통 및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바 성격유형의 동일 및 일치가 의사소통 및 결혼만족도와 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2001년 6월 한 달 동안 이루어졌다. 사랑유형검사는 질문지 기입으로 조사하였으며, 성격유형검사는 성격검사를 받은 후 질문지에 기재하도록 하여 회수하였다. 연구 분석 대상은 최종적으로 219부이다.

전체 조사대상자는 전체 218명중 여자는 125명(42.7%)이고 남자는 93명(57.3%)이다.

성격유형을 살펴보면, ISTJ는 33명(15.3%)으로 가장 많았으며, ISFP는 27명(12.6%), ESTP는 23명(10.7%)순으로 나타났다.

<표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수	집단	빈도	백분율(%)
성별	남	93	42.7
	여	125	57.3
	계	218	100
학년	1학년	1	.5
	2학년	107	49.1
	3학년	69	31.7
	4학년	40	18.3
	계	218	100
연령	19	6	2.7
	20	7	3.2
	21	59	26.9
	22	34	15.5
	23	24	11.0
	24	38	17.4
	25	28	12.8
	26	13	5.9
	27	5	2.3
	28	3	1.4
	30	1	.5
	36	1	.5
	계	219	100

<표2> 연구대상자의 MBTI 성격유형

변수	집단	빈도	백분율(%)
성격유형	ISTJ	33	15.3
	ISFJ	20	9.1
	INFJ	5	2.3
	INTJ	6	2.8
	ISTP	18	8.4
	ISFP	27	12.6
	INFP	9	4.2
	INTP	6	2.8
	ESTP	23	10.7
	ESFP	18	8.4
	ENFP	12	5.6
	ENTP	5	2.3
	ESTJ	19	8.8
	ESFJ	9	4.2
	ENFJ	2	.9
ENTJ	3	1.4	
계	215	100	

빈도의 차이는 문항별 무응답을 MISSING 처리하였기 때문.

2.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질문지로서 연구 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년, 전공을 묻는 질문과 함께 <표3>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3> 질문지 구성

검사 목적	검사지	문항수	제작자
사랑유형	사랑의 구성요소 (사랑의 삼각이론)	45	스턴버그(1986)
	사랑유형 측정	50	Hendrick & Hendrick (1986)
성격유형	MBTI	94	Myers, I & Myers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학년, 전공	4	

<표4> 주요검사 신뢰도

측 정		문항수	Cronbach의 α
사랑에 대한 태도	사랑의 삼각이론	45	.97
	사랑유형 측정	50	.64

사랑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스톤버그의 삼각이론(1986) 척도 45문항과 Lee(1973)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Hendrick & Hendrick(1986)의 척도 50문항을 사용하였다. 사랑의 구성요소 척도는 총 45문항으로써 세 가지 구성요소인 친밀감, 열정, 헌신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관계를 맺고 있거나, 관계를 맺었던 사람, 그리고 앞으로 관계를 맺을 사람과의 관계 정도를 체크하는 것이다. 1에서, 9까지 평가를 내리는데 '1은 전혀 아님', '5는 적당함'을, '9는 아주 많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관계의 정도를 묻는다. 사랑의 유형을 묻는 척도는 평소에 자신이 생각한 사랑이 무엇이며, 사랑할 때의 감정, 그리고 사랑은 어떠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김중술, 2000)을 바탕으로 하여 '그렇다' 혹은 '아니다'로만 답한다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서 실시된 검사는 Myers Briggs Type Indicator(MBTI)에 의해 나타나는 유형인 MBTI 검사 94문항을 사용하였다. 개인적 특성을 측정하는 성별, 연령, 학년, 전공 5문항은 본 연구자가 작성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3. 자료의 분석방법

회수된 자료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 2) 사랑유형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의 α 를 산출하였으며, 문항간 변별력을 알아보기로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3) 연구대상의 성격유형에 따라 사랑유형이 어떠한가 알아보기 위해 t-test, 분산분석 및 Duncan 검증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 대상자의 성격유형의 일반적인 경향

성격유형을 살펴보면, ISTJ는 15.3%(33명), ISTP는 8.4%(18명), ESTP는 10.7%(23명), ESTJ는 8.8%(19명), ISFJ는 9.1%(20명), ISFP는 12.6%(27명), ESFP는 8.4%(18명), ESFJ는 4.2%(9명), INFJ는 2.3%(5명), INFP는 4.2%(9명), ENFP는 5.6%(12명), ENFJ는 .9%(2명), INTJ는 2.8%(6명), INTP는 2.8%(6명), ENTP는 2.3%(5명), ENTJ는 1.4%(4명)이다.

MBTI 한국 표준화 검사 결과 흔히들, 우리 나라는 'SJ문화'라고 한다. 그 만큼 I, S, J형이 많이 나타나는데 미국인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I, S, J형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었다16). 따라서 본 연구집단도 우리나라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표5> 연구대상자의 MBTI 성격유형 (N=215, 100%)

		감각				직관		N	%
		사고		감정		감정	사고		
		유형	ISTJ	ISFJ	INFJ	INTJ			
내 향	판 단	유형	ISTJ	ISFJ	INFJ	INTJ	E	91	42.1
		N	33	20	5	6	I	125	57.9
		%	15.3	9.1	2.3	2.8	S	167	77.7
	인 식	유형	ISTP	ISFP	INFP	INTP	N	48	22.3
		N	18	27	9	6	T	113	52.3
		%	8.4	12.6	4.2	2.8	F	103	47.7
의 향	인 식	유형	ESTP	ESFP	ENFP	ENTP	J	98	45.6
		N	23	18	12	5	P	117	54.4
		%	10.7	8.4	5.6	2.3	ST	92	42.6
	판 단	유형	ESTJ	ESFJ	ENFJ	ENTJ	SF	76	35.2
		N	19	9	2	3	NF	28	13.0
		%	8.8	4.2	.9	1.4	NT	20	9.3
							SJ	81	37.5
							SP	87	40.3

빈도의 차이는 문항별 무응답을 MISSING 처리하였기 때문.

2. 성격유형과 사랑의 구성요소와의 관계

스턴버그의 사랑의 구성요소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3가지 구성요소 하위 문항별 변별력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전반적으로 5점에서 7점 사이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사랑은 친밀감 6.29, 열정 5.75, 헌신 5.76으로 나타났다.

<표6>은 사랑의 구성요소와 MBTI 선호별 분석을 하였다. I보다 E가 성숙한 삼각형으

16) 미국인은 ISTJ는 대략 7-10%, ISTP는 대략 4-7%, ESTP는 대략6-8%, ESTJ는 대략 12-15%, ISFJ는 대략7-10%, ISFP는 대략 5-7%, ESFP는 대략 8-10%, ESFJ는 대략 11-14%, INFJ는 대략 2-3%, INFP는 대략 3-4%, ENFP는 대략 6-7%, ENFJ는 대략 3-5%, INTJ는 대략2-3%, INTP는 대략 3-4%, ENTP는 대략 4-6%, ENTJ는 대략 3-5%이다.

Paul D. Tieger & Babara Barron- Tieger(2001). Do what you are. Little, Barron and company.

로 나타났다. 외향성, 내향성에 따라 구성요소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으며, 감각형과 직관형 지표는 친밀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친밀감, 열정적 헌신 등에서 높은 표현을 한다. 인식선호도에서 감각형인 경우가 직관형보다 친밀감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현실적으로 친밀감을 잘 표현하고 있다.

<표6> MBTI 선호별에 따른 사랑의 구성요소

성격유형		친밀감	열정	헌신
E	N(%)	85(43.9)	88(44.8)	86(44.9)
	M	6.67	6.04	6.12
	SD	1.38	1.63	1.90
I	N	121(56.1)	119(55.2)	118(55.1)
	M	5.98	5.51	5.46
	SD	1.72	1.63	1.87
계(%)		206(100)	207(100)	204(100)
t		-3.188**	-2.320*	-2.391*
S	N(%)	163(81.3)	162(79.4)	160(80.3)
	M	6.41	5.79	5.84
	SD	1.47	1.61	1.91
N	N	42(18.7)	44(20.6)	43(19.7)
	M	5.73	5.53	5.32
	SD	2.03	1.81	1.88
계(%)		205(100)	206(100)	203(100)
t		2.049*	.944	1.601
T	N(%)	106(51.4)	109(51.9)	105(51.2)
	M	6.26	5.65	5.70
	SD	1.62	1.58	1.95
F	N	100(48.6)	98(48.1)	99(48.8)
	M	6.28	5.83	5.76
	SD	1.59	1.72	1.86
계(%)		206(100)	207(100)	204(100)
t		-.102	-.768	-.219
J	N(%)	93(46.2)	93(45.4)	91(46.5)
	M	6.38	5.77	5.95
	SD	1.53	1.66	1.89
P	N	112(53.8)	113(54.6)	112(53.5)
	M	6.18	5.71	5.55
	SD	1.69	1.65	1.92
계(%)		205(100)	206(100)	203(100)
t		.872	.237	1.457

* p<.05 ** p<.01

<표7>은 MBTI 16가지 성격유형에 따라 사랑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

보기 위한 분석이다. 성격유형에 따라 사랑의 구성요소인 친밀감이 요소가 사랑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성격유형별 사랑의 구성요소의 형성을 살펴보면, 친밀감 상위 5위는 ENFJ(7.36), ESTJ(6.97), ESFJ(6.91), ENTP(6.90), ESTP(6.65)이며 열정 상위 5위는 ENTJ(7.00), ESFJ(6.85), INTP(6.52), ESFP(6.18), ESTJ(6.17)이고 헌신 상위 5위는 ESFJ(7.16), ENTJ(7.00), ENFJ(6.30), ESTJ(6.30), ESFP(5.95)이다. 그러나 ENFJ와 ENTJ의 높은 점수는 표집 대상이 적은 것을 고려해야한다. 상위5위안에 나타나는 각 성격유형을 보면 대체로 사랑의 유형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사랑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거나 행동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랑의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하는 집단들이다.

<표7> 성격유형에 따른 사랑의 구성요소 N(%)

성격유형	친밀감	열정	헌신	성격유형	친밀감	열정	헌신		
ISTJ	N(%)	33(15.9)	33(15.3)	32(15.6)	ESTP	N	22(11.4)	23(10.9)	23(11.5)
	M	6.18	5.46	5.67		M	6.65	5.61	5.82
	SD	1.52	1.45	1.95		SD	1.48	1.48	2.02
ISFJ	N	19(9.7)	18(8.9)	18(8.9)	ESFP	N	17(8.3)	18(9.4)	18(9.2)
	M	6.56	5.85	5.77		M	6.27	6.18	5.95
	SD	1.30	1.72	1.76		SD	1.24	1.32	1.87
INFJ	N	5(2.1)	5(2.2)	5(2.5)	ENFP	N	12(6.1)	12(5.8)	11(5.5)
	M	5.53	5.24	5.81		M	6.53	5.75	5.81
	SD	1.78	.88	1.81		SD	1.65	2.13	1.85
INTJ	N	5(1.8)	5(1.9)	5(2.2)	ENTP	N	4(2.1)	4(2.1)	4(1.9)
	M	4.70	4.40	5.09		M	6.90	6.15	5.65
	SD	2.17	1.91	1.90		SD	.97	1.01	1.91
ISTP	N	18(8.1)	17(7.8)	16(7.1)	ESTJ	N	19(10.3)	19(9.9)	18(9.8)
	M	5.79	5.39	5.19		M	6.97	6.17	6.30
	SD	1.95	1.70	2.37		SD	1.22	1.73	1.73
ISFP	N	27(13.4)	26(12.6)	27(13.3)	ESFJ	N	8(4.3)	8(4.6)	8(4.9)
	M	6.37	5.73	5.72		M	6.91	6.85	7.16
	SD	1.29	1.66	1.56		SD	1.79	2.09	2.23
INFP	N	9(3.2)	8(3.1)	9(3.0)	ENFJ	N	2(1.1)	2(1.0)	2(1.1)
	M	4.51	4.57	3.87		M	7.36	5.7	6.30
	SD	2.39	1.93	1.83		SD	.42	.51	2.30
INTP	N	4(1.7)	6(3.3)	5(2.3)	ENTJ	N	1(.5)	2(1.2)	2(1.2)
	M	5.55	6.52	5.30		M	6.00	7.00	7.00
	SD	2.66	1.63	1.45		SD	.	1.55	2.40

친밀감 F= 1.936* N=205, 열정 F= 1.287 N=206, 헌신 F= 1.210 N=203

* p < .05 ** p < .01

3. 성격유형과 사랑유형과의 관계

전체 대상자의 6가지 사랑의 유형은 좋은 친구 같은 사랑은 61.43%, 이타적 사랑은 59.32%, 논리적 사랑은 51.20%, 유희적 사랑은 58.20%, 낭만적 사랑은 37.97%, 소유적 사

량은 38.90%로 나타나 좋은 친구 같은 사랑, 이타적 사랑, 유희적 사랑, 논리적 사랑, 소유적 사랑, 낭만적 사랑 순으로 사랑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표8>은 MBTI 성격유형의 선호지표에 따른 사랑유형을 분석한 표이다. 외향성(E)과 내향성(I) 지표는 좋은 친구 같은 사랑과 낭만적 사랑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판단(J)과 인식(P) 지표는 논리적 사랑과 소유적 사랑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감각(S)과 직관(N)지표와 사고(T)와 감정(F)지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표9>는 성격유형에 따른 사랑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분석표이다. 성격유형에 따른 논리적 사랑, 소유적 사랑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낭만적 사랑은 ENTJ와 ESFJ, INFJ간에 관련이 있으며, 소유적 사랑은 ISFJ, ENTJ와 INTP, ESFP간에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성격유형에 따른 사랑유형의 평균을 살펴보았을 때, 상위 5위를 알아볼 수 있었다. 좋은 친구 같은 사랑은 ENFJ(81.25%), INFJ(70.00%), ISFP(69.50%), ISTJ(68.54%), ISFJ(65.13%) 순으로 나타났고, 이타적 사랑은 ENFJ(77.77%), INFJ(75.55%), ESFJ(69.13%), INTP(64.81%), INTJ(62.96%), 논리적 사랑은 INFJ(80.00%), ESFJ(62.96%), INTJ(57.40%), ESTJ(57.40%), ENFP(55.5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희적 사랑으로는 ENFJ(83.33%), INFJ(73.33%), ISFJ(70.00%), ESFJ(61.72%), ESTP(61.11%)순으로 나타났으며, 낭만적 사랑은 ESTP(45.10%), ENFP(44.79%), ESFP(44.44%), INTP(41.66%), ESFJ(41.66%)순으로 나타났고, 소유적 사랑으로는 INTP(50.00%), ESFP(47.79%), ENFP(43.18%), ISTP(43.05%), INFP(40.62%)순으로 나타났다.

<표8> MBTI 선호별에 따른 사랑유형

성격유형		좋은친구	이타적	논리적	유희적	낭만적	소유적
E	N(%)	89(39.7)	87(41.1)	88(43.4)	86(41.8)	89(47.8)	82(43.8)
	M	57.30	58.36	53.15	58.13	42.41	41.92
	SD	22.59	21.44	22.94	22.20	19.36	19.18
I	N	119(60.3)	122(58.9)	121(56.6)	121(58.2)	120(52.2)	119(56.2)
	M	65.02	59.56	50.50	57.57	34.37	37.07
	SD	18.01	20.50	22.81	24.72	17.24	18.76
계(%)		208(100)	209(100)	209(100)	207(100)	209(100)	201(100)
t		2.652**	.408	-.828	-.169	-3.162**	-1.781
S	N(%)	160(78.7)	163(77.8)	162(78.2)	161(79.1)	162(78.0)	156(77.1)
	M	62.73	58.62	51.71	58.52	37.80	38.62
	SD	19.84	21.35	21.56	24.39	18.79	19.22
N	N	47(21.3)	45(22.2)	46(21.8)	45(20.9)	46(22.0)	44(22.9)
	M	57.71	60.74	50.72	55.30	37.50	40.62
	SD	21.89	19.33	27.08	21.12	18.06	18.70
계(%)		207(100)	208(100)	208(100)	206(100)	208(100)	200(100)
t		1.489	-.601	.228	.803	.099	-.614
T	N(%)	108(50.0)	109(51.4)	109(52.7)	108(50.0)	109(53.6)	105(53.8)
	M	59.49	58.20	52.19	55.45	38.87	40.23
	SD	22.46	20.33	23.73	23.16	19.49	19.53
F	N	100(50.0)	100(48.6)	100(47.3)	99(50.0)	100(46.4)	96(46.2)
	M	64.12	60.00	51.00	60.38	36.62	37.76
	SD	17.73	21.48	21.94	24.02	17.52	18.49
계(%)		208(100)	209(100)	209(100)	207(100)	209(100)	210(100)
t		-1.657	-.620	.376	-1.502	.875	.921

<표8> MBTI 선호별에 따른 사랑유형(계속)

성격유형		좋은친구	이타적	논리적	유희적	낭만적	소유적
J	N(%)	94(47.4)	96(47.4)	96(50.2)	96(47.7)	94(43.0)	92(41.4)
	M	64.22	60.64	56.01	59.14	35.90	35.19
	SD	20.78	19.73	21.26	24.84	18.44	20.29
P	N	113(52.6)	112(52.6)	112(49.8)	110(52.3)	114(57.0)	108(58.6)
	M	59.40	57.73	47.61	56.66	39.25	42.36
	SD	19.87	21.86	23.50	22.72	18.65	17.41
계(%)		207(100)	208(100)	208(100)	206(100)	208(100)	200(100)
t		1.704	1.001	2.705**	.747	-1.297	-2.690**

* p < .05 ** p < .01

<표9> 성격유형에 따른 사랑유형의 구성유형 (N= 207, 100%)

성격유형		좋은친구	이타적	논리적	유희적	낭만적	소유적
ISTJ	N(%)	31(16.7)	32(15.1)	32(16.5)	32(14.2)	31(13.5)	32(15.5)
	M/D ¹⁾	68.54	57.98	55.20 abc	52.77	34.27	37.89 ab
	SD	17.34	20.10	21.58	27.36	15.12	21.64
ISFJ	N	19(9.7)	20(9.3)	20(9.9)	20(11.8)	19(7.8)	20(5.6)
	M/D ¹⁾	65.13	57.22	52.77 ab	70.00	32.23	21.87 a
	SD	16.44	22.59	19.03	22.82	19.30	12.08
INFJ	N	5(2.7)	5(3.1)	5(3.7)	5(3.1)	5(2.1)	5(2.6)
	M/D ¹⁾	70.00	75.55	80.00 c	73.33	32.50	40.00 ab
	SD	14.25	12.17	18.25	25.57	14.25	13.69
INTJ	N	6(2.9)	6(3.1)	6(3.2)	6(2.3)	6(3.0)	6(2.7)
	M/D ¹⁾	62.50	62.96	57.40 abc	46.26	39.58	35.41 ab
	SD	26.22	5.73	28.47	20.38	26.71	21.53
ISTP	N	17(7.9)	18(8.1)	17(7.5)	18(8.9)	18(8.9)	18(9.9)
	M/D ¹⁾	59.55	55.55	47.05 ab	58.64	38.88	43.05 ab
	SD	12.90	21.89	20.61	26.35	20.51	16.72
ISFP	N	25(13.6)	25(12.7)	25(9.4)	24(11.2)	25(10.0)	25(11.7)
	M/D ¹⁾	69.50	62.22	40.11 ab	55.55	31.50	36.50 ab
	SD	16.56	23.35	18.94	23.16	16.97	16.50
INFP	N	9(4.0)	9(4.2)	9(3.3)	9(3.7)	9(3.3)	9(4.2)
	M/D ¹⁾	56.94	56.79	39.50 ab	49.38	29.16	40.62 ab
	SD	20.83	19.59	28.38	17.66	18.75	20.86
INTP	N	6(2.4)	6(3.2)	6(2.8)	6(2.9)	6(3.2)	6(3.8)
	M/D ¹⁾	50.00	64.81	50.00 ab	57.40	41.66	50.00 b
	SD	26.22	16.35	27.88	21.56	12.90	25.00
ESTP	N	23(9.6)	23(11.5)	23(10.9)	22(11.3)	23(13.2)	22(11.5)
	M/D ¹⁾	53.26	61.35	50.72 ab	61.11	45.10	40.90 ab
	SD	22.68	23.17	27.59	21.06	19.12	16.44
ESFP	N	18(8.5)	18(7.5)	18(9.1)	18(9.0)	18(10.2)	17(10.4)
	M/D ¹⁾	60.41	51.23	54.32 abc	59.87	44.44	47.79 b
	SD	20.22	19.10	19.39	27.78	17.26	18.34
ENFP	N	12(5.6)	11(5.2)	11(5.7)	11(4.6)	12(6.8)	11(6.1)
	M/D ¹⁾	59.37	57.57	55.55 abc	49.49	44.79	43.18 ab
	SD	16.96	21.55	24.34	18.16	18.04	19.65

성격유형		좋은친구	이타적	논리적	유회적	낭만적	소유적
ENTP	N	4(1.4)	3(.9)	4(1.5)	3(1.4)	4(1.9)	3(1.6)
	M/D ¹⁾	43.75	37.03	38.88 ab	55.55	37.50	41.66 ab
	SD	23.93	27.96	29.39	11.11	17.67	7.21
ESTJ	N	18(8.2)	18(8.5)	18(9.6)	18(8.1)	19(9.6)	18(8.2)
	M/D ¹⁾	58.33	58.02	57.40 abc	53.70	39.47	35.41 ab
	SD	28.43	18.88	20.96	19.15	25.09	26.16
ESFJ	N	9(4.4)	9(5.1)	9(5.3)	9(4.7)	9(4.8)	9(4.3)
	M/D ¹⁾	62.50	69.13	62.96 bc	61.72	41.66	37.50 ab
	SD	17.67	21.35	14.69	24.28	17.67	26.51
ENFJ	N	2(1.3)	2(1.3)	2(.7)	2(1.4)	2(1.0)	2(1.0)
	M/D ¹⁾	81.25	77.77	38.88 ab	83.33	37.50	37.50 ab
	SD	8.83	.00	7.85	23.57	.00	.00
ENTJ	N	3(1.0)	3(1.4)	3(.8)	3(1.5)	2(.6)	3(1.0)
	M/D ¹⁾	41.66	59.25	29.62 a	59.25	25.00	25.00 a
	SD	31.45	25.66	16.97	27.96	17.67	12.50

좋은친구 F= 1.655, 이타적 F= 1.008, 논리적 F= 1.905*, 유회적 F= 1.125, 낭만적 F= 1.178, 소유적 F= 1.798*

빈도의 차이는 문항별 무응답을 MISSING 처리하였기 때문. *p<.05 **p<.01

1)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성격유형에 따른 사랑유형(<표7>, <표9>)에 나타난 결과에 의해 점수가 높은 5순위별로 성격유형을 살펴보면 <표10>과 같다.

<표10>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순위별 사랑유형

사랑유형		MBTI 성격유형				
		1	2	3	4	5
사랑의 구성요소	친밀감	ENFJ	ESTJ	ESFJ	ENTP	ESTP
	열정	ENTJ	ESFJ	INTP	ESFP	ESTJ
	헌신	ESFJ	ENTJ	ENFJ	ESTJ	ESFP
사랑유형	좋은친구	ENFJ	INFJ	ISFP	ISTJ	ISFJ
	이타적	ENFJ	INFJ	ESFJ	INTP	INTJ
	논리적	INFJ	ESFJ	INTJ	ESTJ	ENFP
	유회적	ENFJ	INFJ	ISFJ	ESFJ	ESTP
	낭만적	ESTP	ENFP	ESFP	INTP	ESFJ
	소유적	INTP	ESFP	ENFP	ISTP	INFP

성격유형에 따른 사랑의 구성요소와 사랑유형을 상위 5위까지 살펴보면 16가지 성격유형이 모두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ESFJ형이 7개, ENFJ형이 5개, INTP, ESTJ, INFJ, ESFP형이 각각 4개 유형에서 나타났으며 ENFP, ESTP형이 3개 유형에서 각각 나타났다.

1순위의 유형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유형에서 ESFJ형이 나타났다. ESFJ형은 동정

심과 동료애가 많고 친절하고 재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고 인화를 도모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긴다. 또한 참을성이 많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돕는다. 특히 사람들 다루고 행동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한다.

ENFJ형들은 동정심과 동료애가 많으며 친절하고 인화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본다. 사교적이며 사람들을 좋아하고 조화있는 인간관계에 높은 가치를 둔다. 이러한 성격유형으로 인해 친밀감, 헌신, 좋은 친구같은 사랑, 이타적 사랑, 유희적 사랑에서 높게 나타났다.

친밀감, 열정, 헌신, 논리적 사랑, 낭만적 사랑에서는 주로 EP형이 나타났다. 이는 적응력 있는 외향형으로 활동적, 정력적, 사교적이며 항상 새로운 경험을 찾으려는 것과 부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논리적 사랑에서 1순위로 나타난 INFJ형은 강한 직관력으로 의미와 진실된 관계를 추구한다. 확고한 신념과 인화와 동료애를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따른다. 또한 강요하기 보다 행동과 권유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따르게 만든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좋은 친구같은 사랑, 이타적 사랑이 높게 나타났다.

이존성과 질투가 특징인 소유적 사랑에 높게 나타난 ESFP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주위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일고자 하고 또한 참견하고 끼어든다. 다른 사람들의 일이나 활동에 관심이 많으며 새로운 사건 혹은 물건에도 관심과 호기심이 많다. 또한 이들은 동정적이고 사랄들에 관심이 많다. 물질적 소유 및 운동을 즐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소유적 사랑에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사랑의 구성요소인 친밀감, 열정, 헌신에서는 활동에너지가 외부로 향하는 E와 판단력이 있는 J형이 대부분 나타났으나, 사랑하기를 결심하고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기를 결심하는 헌신에서는 통찰력을 가진 직관으로 가능성을 보는 N형이 높게 나타났다. 사랑유형에서는 전반적으로 E, F, J형이 나타났다. 즉 활동에너지가 외부로 향하고 인간관계를 중요시 지표들에 의해서 사랑유형에 나타남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사랑의 구성요소와 사랑유형을 분석하고자 울산광역시 소재하는 4년제 대학 중 한 곳을 임의로 선정하고 재학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MBTI 성격유형과 사랑의 구성요소와 사랑유형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성격유형에 따라 성인들의 사랑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밝히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MBTI 성격유형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본 결과, 미국인구에 대한 성격유형과 비교했을 때, ISTJ, ISFJ, ISTP, ISFP, ESTP유형은 더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INFJ, INTJ, INFP, ESFP는 같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밖의 유형은 적게 나타났다.

둘째, MBTI 성격유형의 선호별(E-I, S-N, T-F, J-P)에 따른 사랑의 구성요소를 알아본 결과, EI지표에서는 친밀감, 열정, 헌신의 구성요소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냈고, SN지표에서는 친밀감요소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친밀감, 열정적 헌신 등에서 높은 표현을 하며, 인식선호도에서 감각형인 경우가 직관형보다

친밀감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현실적으로 친밀감을 잘 표현하고 있다. 에너지 방향과 주의 초점이 내부보다 외부로 향하는 이들이 타인을 향한 사랑 표현에 더 성숙하며 그에 만족을 느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외향적인 사람의 사교적이고 활발한 태도가 적용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인식기능에서는 친밀감에서 감각형의 사람들이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 이는 물리적 자극이 인식을 매개로 하는 감각형들에게 개인이 경험하는 친근성과 상대방의 행복에 대한 관심 및 결합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함을 짐작할 수 있다.

셋째, MBTI 성격유형의 16가지 유형별에 따른 사랑의 구성요소를 알아본 결과, 성격유형에 따라 친밀감의 요소의 차이가 사랑의 구성요소에 따라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사랑의 구성요소인 친밀감, 열정, 헌신 중에서 16가지 성격유형에 따라 친밀감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남을 말하는 것이다. 친밀감은 가족, 친구, 연인들간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 할 때, 인간관계시 친밀감의 정도가 매우 의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MBTI 성격유형의 선호별(E-I, S-N, T-F, J-P)에 따른 사랑의 유형을 알아본 결과, EI지표에서는 좋은 친구 같은 사랑과 낭만적 사랑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냈고, SN지표와 TF지표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JP지표에서는 논리적 사랑과 소유적 사랑에 유의미함이 나타났다. 좋은 친구 같은 사랑을 하는 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가족간에 긴밀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며, 부모나 형제들로부터 항상 사랑과 지지와 협조를 받고, 서로간에 깊은 신뢰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이들이다. 그리고 낭만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 생각, 지난날에 겪었던 경험 등 모든 것을 서로 알리고 알고 싶어하며, 자기가 좋아하는 것, 희망사항, 비밀까지도 말하기를 선호한다. 이러한 특징이 MBTI 성격유형 EI지표의 에너지 방향과 주위 초점에 접목되어 나타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행동양식을 나타내는 JP지표의 특징과 매우 현실적이며 자신이 좋아하며 혹은 필요로 하는 지를 대개 정확히 알고 있는 등의 판단과 결정을 선호하는 논리적인 사랑의 특징과 접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극한 상황에서는 소유욕과 질투심을 발하여 자신의 사랑을 확인하며 보상받으려고 하는 소유적 사랑의 특징과 접목됨을 짐작할 수 있다.

다섯째, MBTI 성격유형의 16가지 유형별에 따른 사랑의 유형을 알아본 결과, 성격유형에 따라 논리적 사랑과 소유적 사랑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논리적 사랑의 특징과 소유적 사랑의 특징이 EI지표의 에너지 선호방향, 주위 초점의 특징과 JP지표의 판단, 인식의 행동양식에 따라 유의미한 것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통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았으나 특정 지역에 국한된 제한점이 있으며, N/F의 표집대상이 작아 상대적으로 사랑의 구성요소와 사랑유형에 높은 점수가 나타났으며, 집단간 평균 비교를 하기 위해 실시한 분산분석의 연구방법상의 제한이 있었다.

둘째,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사랑의 구성요소와 사랑유형분석을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각 개인별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랑유형이 변한다는 사랑의 삼각이론과 사랑유형론의 가설에 입각하여, 결혼이라는 관례의 전, 후에 따라서도 사랑의 구성요소와 사랑유형이 변화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종단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1. 권경인(1996). 대학생의 이성관계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이 효과분석.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김경순(2000). 사랑학습 프로그램이 교제 중인 대학생의 이성관계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김정신·김오남·윤상희(1997). 미혼남녀의 사랑과 성에 대한 태도 및 배우자 선택 조건. 대한가정학회지, 35(3), 15-30.
4. 김신자(1996). 청소년의 성과 사랑에 관한 일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김정택·심혜숙·임승환(1997). 성격유형과 삶의 양식. 한국심리검사연구소.
6. 김정택·심혜숙·제석봉(1995). MBTI 개발과 활용. 한국심리검사연구소.
7. 김정택·정덕자(1998). MBTI 타당도에 관한 일 연구-성격진단검사와의 상관연구-. 한국심리유형학회지, 5(1), 25-54.
8. 김중술(2000). 신 사랑의 의미. 서울대학교출판부.
9. 박의순(1997). 애착과정으로 본 한국부부의 사랑.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0. 송윤희(1998). 미혼 남녀의 교제진행과 사랑-S. V. R. 이론 관점에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심혜숙·임승환 역(1997). 성격유형과 삶의 양식. 한국심리연구소.
12. 윤가현(2001). 성문화와 심리. 학지사.
13. 유소영(2000). 사랑요소의 지각된 불일치와 책임귀인양식에 따른 이성관계만족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이선희(2000). 부부의 MBTI 성격유형의 유사성과 의사소통 및 결혼만족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정호택(1994). 사랑의 유형과 그 심리학적 특성.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조은혜(1996). 성격과 사랑유형간의 관계-사랑유형 척도의 타당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차승희(1993). 대학생의 이성관계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상담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 최연실(1999). 사랑에서의 사회적 성(性)과 자기개발에 대한 연구: 미혼 및 기혼 남녀의 면접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55-74.
19. 최연실·이경희·고선주·조은숙 편역(2001). 사랑의 심리학. 하우.
20. 최혜경·강진경·신수진(1999). Sternberg의 사랑의 삼각이론의 한국 부부애의 적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47-59.
21. 홍대식(1996). 한국 대학생의 사랑스타일과 이성상대 선택준거. 한국심리유형학회지, 10(2), 81-110.
22. 홍순옥(1993). 성역할 특성에 따른 사랑경험의 차이: 청년기 이성간이 사랑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3. 통계청(2001). 2000년 혼인·이혼통계결과
24. Hatfield, E., & Sprecher, S.(1986). Measuring passionate love in intimate relations. *Journal of Adolescence*, 9, 383-410.

25. Hazan, C., & Shaver, P.(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26. Hendrick, C., & Hendrick, S.(1986). A Theory and method of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2), 392-402.
27. _____(1989). Research on love: Does it measure 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2), 392-402.
28. Lee, J. A.(1977). A typology of styles of lov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3-182.
29. Paul D. Tieger & Babara Barron- Tieger(2001). Do what you are. Little, Barron and company.
30. Rubin, Z.(1970). Measurement of romantic lo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6, 265-273.
31. Sternberg, R. J.(1986). A triangular theory of love. *Psychological Review*, 119-135.